

월요논단



권재효 시인

흑룡만리

짧으면서도 아주 긴, 한 편의 시다. 흑룡만리. 제주 발담을 이보다 더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필자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 한 구절에는 제주인의 기나긴 인고의 세월이 느껴진다. 거친 바람 속에서 박도를 묵묵히 일궈나가는 제주인의 한숨과 땀이 느껴진다. 바야흐로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제주인의 기상이 느껴지기도 한다.

언젠가 TV에서 아일랜드의 풍경을 본 적이 있다. 영국에 대한 아일랜드인의 저항을 다룬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다. 아일랜드는 영국 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돼 있다. 북쪽은 영국령으로 주민 대부분이 개신교를

믿는다. 남쪽은 에이레 공화국이다. 주민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고 있다. 원래는 이 섬 전체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19세기 끈질긴 독립운동 끝에 비록 북쪽 개신교 지역이 제외되었지만 독립국이 됐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권 시인 에이츠도 실은 에이레 사람으로서 에이레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 중 하나다.

이 영화를 보면서 풍경이 어딘지 모르게 친숙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돌로 대충 대충 쌓아 놓은 것 같은 발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흑백으로 찍었다면 최근 선풍을 일으킨 영화 '지슬'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 영화 속의 발담들은 넘실거리는 보리와 함께 필자의 머리속에 짙게 각인돼 있다.

흔히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제주 발담이 그렇다. 올아방, 어방 손발 부르는 영국 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돼 있다. 북쪽은 영국령으로 주민 대부분이 개신교를

몇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흑룡만리>도 농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닐 것이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식자층에서 나온 말이다. 노동에서 벗어나 있음으로 해서 그는 제주 발담을 미적으로 바라볼 여유가 있었는 지도 모른다.

필리핀의 바다도 지방에 가면 해발 수백 미터의 산이 온통 계단식 논으로 되어 있어 방문객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운남성의 고산지대에도 해발 수천 미터까지 소수민족들이 일궈놓은 계단식 논밭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우리나라 남해도 다랭이 마을도 꽤 유명하다. 다랭이는 계단식 논이나 밭을 일컫는 순수 우리말이다.

필리핀이나 중국, 혹은 남해도의 다랭이 마을 사람들이 오늘날의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논과 밭을 일구었는지는 그들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투를 해왔을 뿐이다. 전쟁을 피해, 혹은 폭정을 피해, 혹은 한랭의 내 땅을 가져보기 위한 일념으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험준한 산을 찾아간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흔적이 있다. 나 혼자들이 어쩌면 호사가랄 수도 있는 오늘날의 관광객들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지도 모른다.

제주의 발담 역시 수천 년 이어 내려온 제주인들의 땀과 눈물의 흔적이다. 거친 바람과 거친 땅과 싸워야만 했던 그들의 노고가 오늘날 애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제주에 사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외지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경이로운 볼거리다. 이 독특한 경관은 분명 인공에 의한 산물이지만 자연의 일부로 인식된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무자비한 폭정을 연상케 한다면 제주의 흑룡만리는 거친 자연을 극복한 제주인의 승리를 연상케 한다. 하여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지도 모른다. 제주의 발담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은 그 실현 여부가 떠나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설

'꽃자왈' 명확한 定義부터 세워야

얼마 전 제주도 환경 정수꽃자왈에서 반딧불이가 발견되며 이목을 끌었다. 2011년 발견된 서귀포시 한남시원립 내 문운산반딧불이 집단서식지보다 개체가 훨씬 많았다.

꽃자왈은 생태계의 보고(寶庫)다. 올해 초 한라산연구소가 '꽃자왈 환경 자원 조사보고서'를 펴냈다. 2008~2012년 5년 동안 환경, 안덕, 구좌·성산, 조천·함덕, 애월 등 도내 대표적인 꽃자왈 98.9km를 대상으로 동식물 분포와 지질, 토양특성 등을 연구·조사한 결과물이다.

조사 결과 꽃자왈에서는 총 750여종의 식물이 확인됐다. 제주지역에서 서식하는 식물 1990종의 38.6%에 해당한다. 양지식물은 전체의 56.3%가 꽃자왈에서 발견됐다. 종(種) 피난처이자 생태통로 역할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공통 분포종 221종이 확인되기도 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8종과 멸종위기에 놓일 우려가 있는 242종, 특산식물 20종도 발견됐다. 곤충은 멸종위기종 5종과 한국 고유종 58종·제주 고유종 6종, 조류 84종과 포유류 19종의 서식도 확인됐다. 다른 조사에

서는 꽃자왈의 탄소저장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29일 제주웰컴센터에서는 '꽃자왈의 생태문화 그리고 미래가치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꽃자왈의 생태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꽃자왈의 명확한 정의(定義)'를 촉구했다. 정의가 불분명한 바람에 개발과 보전이 상충되는 등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꽃자왈은 숲을 뜻하는 '꽃'과 수풀이 우거진 곳을 일컫는 '자왈'을 합쳐 만든 제주 고유어다. 지질학적으로는 점성이 큰 아아암암류가 흐르면서 표면이 거칠고, 상부와 하부에 1~2m 두께의 클리크층을 형성하며 중앙부는 비교적 치밀한 용암상태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투수성이 매우 높아 중요한 지하수 함양원(涵養源)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의 조사에서는 평평한 모양의 '파호이호이용암류'에도 꽃자왈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지역에는 곳곳에 사지가 발달할 정도로 물빠짐이 현저히 낮다. 지금의 정의로는 꽃자왈에 포함되지 않는다. 꽃자왈의 명확한 정의를 촉구하고 나선 이이다.

또 '不實대학' 낙인 찍힌 제주국제대

제주국제대가 또다시 '부실(不實)대학'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로 인해 각종 규제와 제한조치를 받게 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순위 하위 15%) 35곳을 확정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더 심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부실이 심한 경영부실대학은 전국 11개교가 선정됐는데 제주국제대도 그 속에 포함됐다. 실로 낮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국제대가 받은 규제(規制)는 매우 많다. 우선 2014년도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부실경영대학에도 지정됨으로써 향후 각종 재정(財政)신청 자격 및 학자금 대출 제한, 사법·보건의료 계열의 정원 자체조정도 불가능해진다.

또 신입생들의 경우 개별 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1유형)마저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경영부실대학은 전문건설임제

의 경영컨설팅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이나 학과 통폐합, 내부 구조 조정 등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처럼 제주국제대가 최악(最惡)의 국면에 몰리게 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현재 제주국제대는 거듭되는 이사회 파행(跛行)으로 예·결산안 등 대부분의 안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경영 등을 둘러싼 이사회원 간의 갈등과 내부 다툼이 그 원인이다. 총장은커녕 직무대행조차 없는 등 모든 게 뒤죽박죽 상태로 당분간 학교 정상화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제주자치도가 제주국제대 사태와 관련 칼을 빼든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최근 동원교육학원 이사회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거듭되는 파행을 좌시해서는 학생 등 구성원들의 피해와 지역 사회의 이미지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 판단에서다. 이번 제주도의 조치가 학교 정상화를 위한 기폭제(起爆劑)가 되어 제주국제대가 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열린마당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를 아십니까



김인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공채는 혈연·지연·학연 등의 영향으로 우수한 실력이 있으면서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채용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기업의 잦은 우수채용을 상·하반기 정례화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참가 기업은 54곳에 그쳤으나, 올 상반기 4월 정기공채에서는 110개 기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하반기 취업시즌에 맞춰 9월 한 달간 실시되는 정기공채에서는 124개 기업체가 330여명의 채용계획을 가지고 참여한다. 특히 이번 하반기 정기공채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 대학 LINC사업단의 산학협력 가족회사 참여를 확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취업처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취업은 개인은 물론 지역, 더 나아가 국가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그야말로 21세기 지구촌의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실효적인 복지는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하반기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를 통해 구직자는 원하는 직장에서 행복한 사회 첫발을 내딛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처서가 지나면서 올 여름 유난했던 폭염의 기세도 한풀 꺾였다. 그러나 하반기 취업시즌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 열기는 한창이다. 특히 제주는 1~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와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으로 고용 창출력이 낮고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현실이라 취업전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향토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채용시스템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간기업 통합 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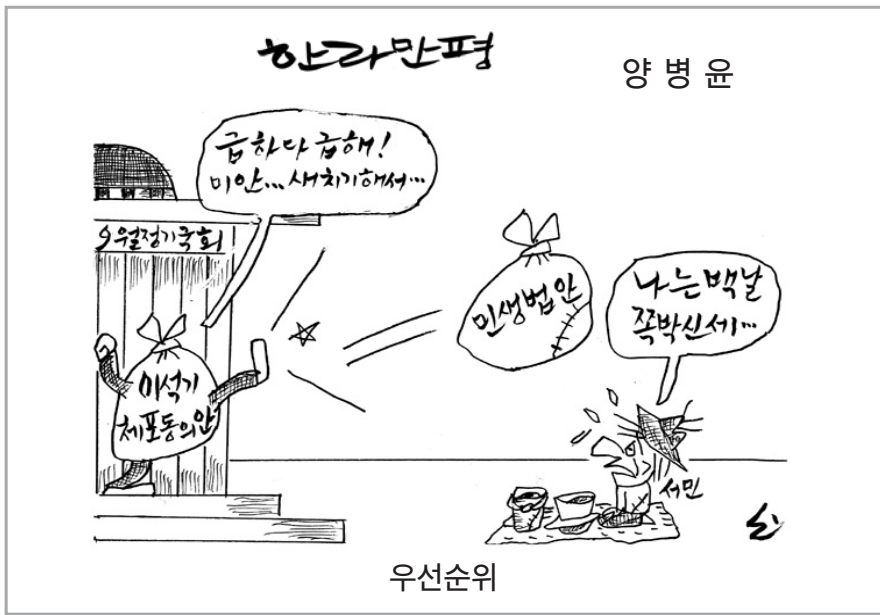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anra Daily (한라일보)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Advertisement for 'Yukji Travel' (육지 여행 전문 여행사) featuring package deals for Jeju Island, including flights and accommodation.

Advertisement for 'New Products' (신품종 감귤 분양) featuring various types of citrus fruits like Daejeong (다로코), Kawada (가와다), and others.

Advertisement for 'Introduction to Friends' (독신남들에게 강추!!!) featuring a couple and promoting a service for finding partners.

Advertisement for 'Jeju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제주 통신기반 구축) by Hanra Telecommunications (한라전설(주)), listing various services like fiber optic and CCTV.